

사회변화와 신기술 도입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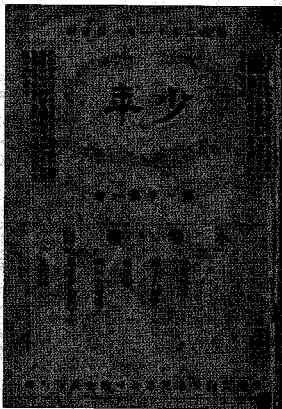
노동자의 위기인가, 기회인가?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중반까지 서양으로부터 근대 문물과 제도를 받아 들이는 근대화 과정 속에서 인쇄 분야는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이전의 전통과 단절된다. 세계 최초로 금속활자를 발명하였던 선조들의 빛나는 지혜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전통 인쇄술은 세계화에 동참하지 못하면서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서양의 신기술을 도입해 써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근대인쇄술의 도입으로 우리나라 인쇄술은 근대화의 길로 발전하는 기회를 갖게 되나, 인쇄기술자들은 역사의 유물로 퇴출되느냐 아니면 신기술로 무장한 새로운 기술자 집단으로 등장하느냐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근대인쇄술의 도입과 인쇄 직공의 등장

우리나라 근대 인쇄의 시작은 일본에 수신사로 갔던 박영효가 신문 발간의 필요성을 느끼고 귀국할 때 납활자와 활판인쇄기 등의 시설을 들여왔던 1882년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계기로 통리아문 내에 박문국이 설치되었다. 그리고 1883년 9월 20일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인 한성순보 창간호가 발간되었다. 한성순보를 처음 인쇄할 때는 일본인 기술자의 기술 지도를 받았으나, 이듬해부터는 우리나라 기술자들이 조판과 인쇄의 전 공정을 맡게 된다. 1904년에는 탁지부에 인쇄국을 설치하여 최신 인쇄설비를 도입하였고, 민간 인쇄업계의 발전과 인쇄기술자의 양성에 크게 기여를 한다.

최초의 민간인쇄소로는 1884년(고종 21)에 광인사인쇄공소가 설립되었다. 광인사는 원래 목활자 인쇄를 하던 곳이었다. 광인사는 일본에서 활판인쇄기와 납활자를 도입하여 근대식 인쇄시설을 갖추고 한글 활자까지 완비하여 최초의 국한문 혼용 책자인 『농정촬요』 등 많은 서적을 발간하였다. 1900년대에 들어서면 광문사, 박문사, 보성사, 문아당인쇄소 등 민간업체가 속속 설립된다. 1908년에는 최남선이 신문관을 설립하였다. 여기서 발간된 최초의 근대 종합잡지인 『소년』 창간호는 표지를 3색도로 인쇄하고 본문의 앞부분 일부를 2색도로 찍어 상당히 세련된 기술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당시에는 인쇄와 출판이 명확히 분리된 개념이 아니어서 많은 인쇄사들이 인쇄와 출판을 함께 하였다.



종합잡지 '소년' 창간호 표지

한편 각 종교단체에서도 인쇄소들을 운영하였고, 우리나라의 근대인쇄술 보급과 발전에 많은 이바지를 하였다. 이들 인쇄소로는 천주교의 성서 활판소, 개신교의 배재학당 인쇄부, 천도교의 보성사 인쇄소 등이 있었다.

특히, 미국인 선교사 아펜젤러가 세운 배재학당 내에 설치한 인쇄부는 1889년부터 인쇄술을 정식과목으로 채택하여 학생들에게 교육을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쇄직공으로 일하도록 하여 우리나라 인쇄술 발전에 기여를 하였다. 또 1892년에는 영문 및 한글 활자를 주조하였다. 이때 주조한 한글 활자는 독립신문(1896년 4월 7일 창간) 인쇄에 사용되었다.

이처럼 정부와 민간에서 근대인쇄시설과 인쇄기술을 활발히 도입하고, 일부에서는 인쇄기술자를 양성하였다. 근대 인쇄직공들은 우리나라 최초의 공장생산 시스템을 경험한 기술자 집단이면서, 후에 우리나라 노동사에서 파워있는 노동자 집단으로 등장하게 된다.

공장생산방식의 도입과 인쇄직공의 열악한 노동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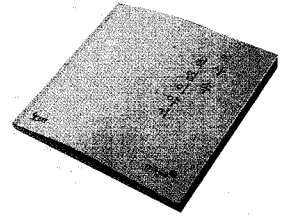
20세기 초부터 한국인과 일본인이 설립한 인쇄소가 서울, 부산, 인천, 원산, 목포 등 개항 도시를 중심으로 전국 각지에 설립되었다. 일본인이 설립한 인쇄소는 최신 시설에 규모도 컸으며, 업체수도 한일합방 전후로 총독부의 지원을 받아 크게 늘어난다. 반면에 한국인 인쇄소는 자본이 적고 기술과 경험이 부족하여 가내 수공업 형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1917년도 통계에 의하면 국내 인쇄업체 총 70개소 중 한국인 인쇄업체는 11개소로 16%가 채 안됐고, 자본금도 일본인 업체의 13% 정도에 불과했다. 1919년 3·1독립운동 이후에는 독립선언문의 인쇄를 맡았던 보성사가 폐쇄되는 등 한국인 인쇄소는 더욱 위축되었다. 당시에 인쇄소를 설립한 한국인들은 항일사상과 민족의식을 높이고 신문화를 보급하고자 하는 목적의식이 뚜렷하였기 때문에 일제의 탄압이 더욱 심했다.

이 당시의 인쇄소들은 근대식 공장생산방식으로 운영되었고, 자연스럽게 근대적인 임금노동자도 같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당시는 산업화 초기로 자본의 힘이 훨씬 강했고 노동자 권리에 대한 의식도 매우 낮았기 때문에 인쇄직공의 노동 조건은 매우 열악했다. 1910년대 인쇄직공의 연간 근무일수는 297일에 달하였다. 구두공장의 양화직공, 고무공장의 고무여공, 양말공, 정미소의 선미여공, 성냥직공, 광산노동자, 부두노동자 등도 열악한 노동조건에 있기는 마찬가지였다. 노동자들은 관리자 및 감독의 감시와 강요 아래 하루에 12~13시간 노동이 보통이었다. 고용주의 자의에 따라 16~18시간까지 일하는 경우도 다반사였다. 더욱이 조선인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은 일본인 노동자들보다 훨씬 낮았다. 조선인 노동자의 임금은 일본인 노동자의 절반을 밑돌았다. 특히, 사회적 약자인 여성노동자와 미성년 노동자의 노동조건은 더욱 열악하였다. 전체 노동자의 30% 정도였던 여성노동자의 임금은 남성의 1/3 수준이었다. 미성년 노동자는 성인 남성의 1/4 수준이었다.

게다가 임금 인상률이 물가폭등을 따라가지 못하여 조선인 노동자들은 절대적 빈곤에 시달려야 했다. 1910년과 1919년 사이 물가는 3배가 뛰었지만 임금상승률은 이에 훨씬 못미쳐서 실질임금은 절반으로 낮아졌다. 당시 노동자들의 비참한 생활상을 한 신문기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음식은 좁쌀과 보리, 그리고 참외, 오이, 일본인이 먹다 버린 수박껍질, 부식은 고추, 된장으로 1인 하루 생활비는 3전 정도, 1개월에 1원으로 보면 1년에 12원”

이러한 참혹한 노동환경 속에서 노동자들 사이에 노동자 권리의식이 싹트기 시작하



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권재철)은 최근 '역사속 직업이야기(인쇄출판)'을 출간했다. 동 기관 김동규 부연구위원이 집필한 이 책에서는 ▲인쇄 분야의 최초 직업인은 누구? ▲필사원은 전문 지식인이었다? ▲목판인쇄 장인은 어떻게 일을 하였을까? ▲금속활자 장인의 전문화와 작업과정 ▲인쇄 담당 관청 및 관직의 변천 ▲고려시대에도 타이포그래피가 있었다? ▲왜 세계최초의 금속활자는 역사의 뒷안길로 밀려났을까? ▲기술발전이 인쇄기술자의 위상 변화에 끼친 영향 ▲기술발전이 인쇄기술자의 직무변화에 끼친 영향 ▲사회변화와 신기술 도입은 노동자의 위기인가 기회인가? ▲미래 인쇄·출판 분야에는 어떤 직업이 생길까? 등을 담고 있다. 김동규 부연구위원은 “이 책을 읽고 기술발전과 사회변화가 직업의 세계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이해하고, 사회 및 기술발전 속도가 빨라진 현대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본지에서는 김동규 부연구위원의 자료 제공으로 이 책자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을 요약해서 시리즈로 소개한다.



미국인이 경영한 한국 최대 금광인 운산금광의 노동자(1895년)

고, 1910년대부터는 노동쟁의가 시작된다. 1920~30년대는 노동쟁의가 질적·양적으로 성장을 한다. 이때 노동자 측이 요구하는 임금인상과 처우개선 수준은 인간적 삶을 겨우 벗어나는 정도였다. 1925년에 평양인쇄직공조합은 공장주측 조합에 14가지 사항을 요구하여 그 중에서 4개 조항을 관철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6조. 1월1~3일 및 매 일요일은 공휴일로 하여 휴업하고, 모일액을 지불할 것
- 7조. 공휴일 외라도 고용주 측에서 휴업할 시는 모일액을 지불할 것
- 9조. 직공이 작업 중 부상할 시는 완치 시까지 치료비 및 일액을 전부 지불할 것
- 12조. 직공에게 무리한 압박과 언동을 말 것

이를 보면, 요즘의 노동법에 비추어 노동운동 초창기인 당시의 노동환경이 얼마나 열악했는지를 알 수 있다. 이 당시 미국에서는 인쇄직공 약 5천여 명이 주 44시간제 확보를 위해 파업을 하고 있는 때였는데 우리나라의 인쇄직공들은 '일요일의 유급휴일화'를 위해 투쟁을 해야만 했다. 열악한 노동환경은 1930년대에도 계속된다. 당시 파업에 참가한 인쇄직공에 대한 신문 인터뷰에 이런 상황이 잘 나타나 있다.

“숙련직공의 보통 평균월급은 약 12원밖에 못되는데 기술노동자에게 12원이란 어대 말이 됩니까? 더욱이 이것으로서는 도저히 밥을 먹어나갈 수가 없어서 평소에 고주(고용주)측에 불평을 가져오던 것이 오늘 폭발이 된 것입니다.”

한편, 공장주 측의 비인간적 대우가 문제를 더욱 확산시켰다. 평양인쇄직공조합의 파업에서뿐만 아니라 사업장별 파업에서도 '직공에 대한 비인간적 언행을 삼갈 것'을 자주 요구하고 있다. 당시 노동자에 대한 자본가의 의식이 매우 낮았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일본인 사업주는 더욱 심하게 한국인 노동자들을 대하였다.

인쇄산업의 성장과 인쇄직공의 인력 부족

3·1독립운동 이후 일제의 정책이 무단정치에서 표면상 문화정치로 전환되면서 1920년에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이 발간되었고 비교적 규모가 큰 한국인 인쇄소가 잇따라 설립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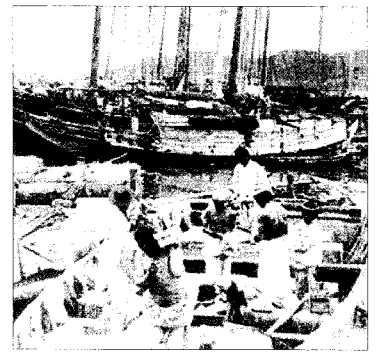
1930년대에는 인쇄업계가 더욱 발전하여 한국인 인쇄소들이 많이 생겨났다. 인쇄 및 제본업은 1930년도에 공장 수 215개, 종업원 수 4146명, 총 생산액 818만 원의 생산액을 기록하였는데, 1939년도에는 공장 수 313개, 종업원 수 8403명, 총 생산액 1838만 원을 올렸다. 10년 사이에 공장 수는 46%, 종업원 수는 103%, 생산액은 125% 성장하였다. 든든한 자본과 총독부 후원으로 성장을 거듭하였던 조선서적주식회사는 1939년 당시에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컸는데, 각종 인쇄기가 45대, 종업원이 5백여 명에 이

르렀다.

1938년 일제는 비군수산업의 통제를 강화하여 인쇄업계를 통제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1939년 경성인쇄조합이 설립되었고, 119개 조합원사가 보유한 인쇄기계를 일제히 등록시켰다. 이때 등록된 인쇄기계 현황을 보면, 활판 인쇄기 449대, 오프셋 인쇄기 30대, 석판 인쇄기 21대, 그라비아 인쇄기 8대, 장부용괘선기 23대, 명함 인쇄기 37대, 기타 11대 등 모두 581대가 등록되었다. 조합에서는 기술인력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등록제를 실시하여 기술인력의 이동과 임금까지도 통제하였다. 이는 인쇄 및 제본 직공이 크게 모자랐기 때문이다.

19세기 말 근대인쇄술이 도입된 후로 인쇄산업이 조금씩 성장하다가 1920~30년대에 크게 성장하면서 인쇄직공에 대한 인력수요도 크게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대다수 공장근로자들이 전반적으로 열악한 근로조건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쇄직공의 노동조건은 비교적 나은 편이었다.

1937년에 경성부(당시 서울) 권업과(勸業課)가 그해 1월 1일부터 3월말 사이에 경성부 내에서 50명 이상의 직공을 사용하는 공장주와 직공수 그리고 임금 현황을 조사한 적이 있었다. 이 때 가장 많은 공장수를 보유한 업종은 인쇄업종으로 전체 98개소 중에서 인쇄 공장이 21개에 이르렀다. 업종별 임금 현황을 보면, 인쇄업의 조선인 직공의 임금은 1월43전6리(1인당 1일 평균)으로 전체 업종 중에서 3위에 해당하였다. 이를 보면, 당시에 인쇄업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했던 비중이 상당히 높았고, 관련 직공에 대한 대우도 다른 업종에 비해서 비교적 좋았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조선인 직공의 임금이 일본인 직공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중국인 직공보다도 적었을 정도로 노동조건이 열악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미성년자인 유년공의 노동조건은 더욱 열악하여 성인 임금의 1/3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부두노동자

새 시대의 지식근로자, 근대 인쇄직공

19세기 후반, 근대화의 물결 속에서 자본주의에 의한 공장생산방식이 도입되면서 근대적 임금노동자 집단이 형성되기 시작한다. 인쇄분야에서도 민간 인쇄공장이 설립되었고 인쇄직공들이 등장한다. 이들은 비록 자본과 기계에 대해 약자의 관계에 있던 임금노동자이긴 했어도, 당시로서는 국가의 주요 산업 중 하나인 인쇄업에서 최첨단 근대기술로 무장한 기술자로서의 자부심이 있었다. 이들의 임금 수준은 다른 노동자 직종에 비해 높았고, 참혹한 생활을 하던 일반인에 비하면 생활수준이 비교적 좋았던 도시근로자였다. 당시의 인쇄직공들은 사회적, 문화적 의식도 높았다. 서울에 수재민이 발생하자 인쇄직공조합과 인쇄직공청년동맹은 이재민구제에 적극 동참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 하였다. 또 경성인쇄직공청년동맹은 세모음악무도대회를 개최하여 인쇄직공들의 문화적 소양향상에 힘썼다.

반면에 기존의 재래식 금속활자 장인들은 차츰 설자리를 잃게 된다. 기존에 서적의 인쇄와 반포 등을 담당하던 정부기관인 비서감이 1905년에 폐지되었다. 주자소에 있던 금속활자도 근대인쇄술이 도입되던 초창기까지는 함께 사용되었으나 차츰 근대식 납활자에 자리를 내주게 된다. 조선의 전통 인쇄 장인들은 단순한 육체노동자가 아니었고 문화생산자로서 정신노동자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생산성과 인쇄품질이 월등했던 근대인쇄술의 도입으로 이들의 입지가 송두리째 흔들리게 된다. 신기술 도입과 사회변화로 재래식 인쇄방식을 고집한 이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었고, 새로운 근대식 인쇄술에 적응한 사람들은 당시로서는 최첨단 산업인 인쇄산업의 기술자로서 자리를 잡게 된다. (끝)